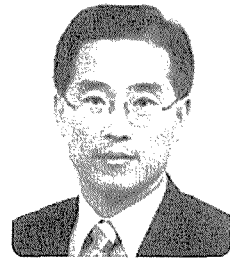


# 2001년 정유업계 동향



한 봉근  
SK주식회사 정책협력팀장

## 1. 머리말

2001년은 연말 환율 급등으로 정유업계가 환차손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을 뿐 아니라, 수입업자의 점유율이 큰 폭으로 확대되고, 유통부문에서도 복수상표표시제가 시행되는 등 시장 및 제도면에서 큰 폭의 변화가 시도된 한해였다.

특히, 외부적으로는 9. 11 테러사태이후 급등하리라 예상되었던 국제유가는 오히려 안정된 반면, 환율은 급등하여 정유업계 경영환경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였으며, 내부적으로는 7월 에너지세계개편 시에는 세금인상분이 정유사간 경쟁에 의해 공장도

가격으로 모두 흡수되어 정유업계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켰음에도, 국제유가 하락분이 즉각 국내유가에 인화되지 않는다는 비판적 여론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유업계를 둘러싼 내외부의 환경변화는 정유업계의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악화시켜 인천정유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정유업계의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반면, 원유 및 석유제품간 비합리적인 관세율 체계는 신규 수입업자 진입의 난립으로 직결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노출한 한 해였다.

## 2. 2001년 정유업계 동향

### (1) 에너지세제개편 시행

정부는 효율적 에너지 이용과 수송용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구조 합리화를 위하여 1년여 이상의 검토를 거쳐 2000년 정기국회에서 확정된 에너지세제개편을 2001년 7월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하였다.

에너지세제개편 일정 - 특소세

과세 대상	적용기간 및 세율									
	01.7.1~ 01.12.31	02.1.1~ 02.6.30	02.7.1~ 03.6.30	03.7.1~ 03.12.31	04.1.1~ 04.6.30	04.7.1~ 05.6.30	05.7.1~ 05.12.31	06.1.1~ 06.6.30	06.7.1~ 06.12.31	07.1.1~ 07.6.30
경유	185원	191원	232원	276원	315원	363원	412원	412원	460원	
등유	82원	82원	107원	131원	131원	154원	178원	205원	231원	
중유	3원	3원	6원	9원	9원	11원	15원	17원	20원	
부탄	114원	114원	203원	323원	323원	420원	515원	592원	704원	
부생연료유	60원	60원	78원	96원	96원	112원	130원	150원	169원	

그러나, 2001년 7월 등유, 경유 등에 대한 세금이 대폭 인상되었지만, 정유사간 경쟁으로 세금인상분이 소비자가격에 전가되지 못하고 공장도가격으로 모두 흡수되어 업계 내외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정부에서는 소비자가격이 인상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기존 운수업계에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지급 여부를 놓고 고심하였으며, 정유업계로서도 수익성 악화로 고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에너지세제개편은 부생연료유(등유대체)에 대해서는 등유와 동일한 용도로 사용됨에도 등유대비 낮은 세금을 부과하여 시장에서의 경쟁을 왜곡하게 하는 등 개선되어야 할 점이 상존하고 있

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에너지세제개편이 국회 통과를 거쳐 법으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에서는 환경세 도입 필요성, 수송용 에너지원간 세금 재조정,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환경부담금 신설 등 에너지세제개편시 충분히 검토되었던 사안에 대해서 재검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으며, 이는 에너지세제개편 향후 일정에 맞추어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정유업계에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2) 2001년 정유업계 경영실적

2001년 정유업계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182억원 증가한 2,377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수익성 악화는 영업이익 감소와 연말 환율상승에 따른 환차손 발생에 따른 것이다.

영업이익은 정유사간 경쟁심화 외에도 원유 및 석유제품간 공정하지 못한 관세율 구조에 따른 석유제품 수입업자들의 저가 물량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8,015억원 감소하였다.

환차손은 전년대비 6,375억원이 감소하였지만, 지속적으로 5,484억원이라는 막대한 규모가 발생하여 정유업계 수익성 악화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정유5사 매출액은 판매물량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1.5% 감소한 42조9천억원을 시현하였으나, 매출액대비 매출원가 비중은 92.1%로서 전년보다 1.2% 증가하여 수익성이 악화되었다.

화학 등 기타사업을 제외한 순수 정유부문 경영실적을 보면, 2000년 정유업계 전체적으로 4천8백억원(정유부문)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2001년에도 5천6백억원(정유부문)의 적자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국내 정유업계 경영실적은 국내 여타 에너지 공기업에 비해서 턱 없이 뒤쳐질 뿐만 아니라, 국내 제조업 평균 매출액이익률 0.8%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2001년 한전 매출액이익률 9%, 가스공사 매출액이익률 4.1%과 비교해 볼 때 국내 정유업계의 2001년 매출액이익률  $\Delta$ 1.4%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정유업계 및 주요 에너지기업의 경영실적 비교

(단위 : 억원, %)

		정유업계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제조업합계 (상장490社)
		법인	정유부문			
2000년	당기순이익	$\Delta$ 2,195	$\Delta$ 4,792	945	17,926	109,970
	매출액이익률	$\Delta$ 0.5	$\Delta$ 1.2	1.5	9.8	2.3
2001년	당기순이익	$\Delta$ 2,377	$\Delta$ 5,564	2,969	17,783	39,826
	매출액이익률	$\Delta$ 0.6	$\Delta$ 1.4	4.1	9.0	0.8

(3) 원유 및 석유제품간 관세차등화

2001년에도 1997년 수출입자유화 이후 줄곧 원유 및 석유제품간 관세차등화 논의가 업계에 주요 관심 사항으로 대두되었다.

현재 원유 관세5%, 석유제품 관세7%가 적용되고 있으나, 국내 정제업의 열악한 경영상황, 주요 경쟁 상대국/선진국의 관세율 구조 감안 및 국내 석유시장의 공정경쟁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원유 관세인하를 통한 원유·석유제품간 관세차등화 확대가 절

실한 실정이다.

※ 석유제품 관세율의 경우 기본관세 8%, 잠정관세 5%, 할당관세 7%가 현재 적용중이며, 당초 정부에서는 제품관세를 8%로 인상하였으나, 외무부 등에서 Standstill조항을 근거로 반대하자 잠정관세 5%를 동시에 시행하였으며, 2001. 1월 이후 할당관세 7%를 적용중임.

주요 외국의 원유 및 석유제품 관세율

(2002. 6월 현재)

구분	한국	미국	일본	EU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원유	5%	5.25¢/B (API 25 미만) 10.5¢/B (API 25 이상)	무세 (170¥/kd)	무세	85元/톤 (무세)	2.5% (무세)	무세
원유대비 관세비교	1~1.4배	2~10배	3.3~19.4배	3.5~4.7배	6~9배	5~11배	5배

1) 괄호안은 실행세율임

2) 자료 : APEC Tariff Database(www.apectariff.org), 중국 관세율표 EU는 EU Tariff Schedule

우리나라 주요 원재료/조제품의 관세율 비교

(2002. 5월 현재)

원재료		조제품		상대비교 (B/A, %)
품명	관세율(A)	품명	관세율(B)	
철광	1%	철강제품	8% 또는 (4~6%)	400~800
목재	1~2%	종이류	8(5)%	250~800
		목제품	8%	400~800
설탕 등 당류	3%	설탕가공 사탕 및 과자류	8%	267
커피, 코코아 등 (볶지 아니한 것)	1.5 ~ 2%	커피 및 코코아를 볶거나 가공하여 만든 제품	8%	400~533
유리(괴)	3~5%	유리제품	8%	160~267
원유	5%	석유제품	8(7)%	140

※ ( )안은 실행세율

※ 기타 원재료의 관세율 : 천연고무 1(0.5)%, 소금(미정제) 1%, 석회 3%

2001년 정유사 및 수입사 부가가치율 비교

(단위 : 억원)

	정유사계	타이거오일	이지석유
매출액(A)	429,045	2,749	1,511
부가가치(B)	28,572	73	25
부가가치율(B/A)	6.7%	2.7%	1.7%

\* 부가가치 : 경상이익+인건비+복리후생비+순금융비+임차료+조세공과+감가상각비

(4) 복수상표표시제 시행

2001년 9월부터 복수상표표시제도가 시행되어 주유소에서는 기존의 1개의 Pole만 표시할 수 있는 데서 벗어나, 해당 회사의 상표를 각각 표시하면 2개 이상의 회사의 제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복수상표표시제 시행으로 주유소들은 2개 상표 제품을 취급하기 보다는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병행 취급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 자석식 탈부착 판넬 및 종이를 이용한 주유기의 비상표제품 표시
- \* 현수막이나 스티커, 판넬형 Board등을 이용한 일과성의 “비상표제품 판매주유소”의 표시나 이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 \*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형태의 비상표제품 표시
- \* 가격표시판에 비상표제품가격 미표시 등

이와 관련하여 업계간에 논란이 지속되었으며, 그 핵심은 주유소내에 “비상표제품 판매주유소”

라는 문구를 표시하는 방법 및 형태에 대한 것으로, 일부에서는 방법과는 무관하게 한 개소 이상 자유 형태로 소비자가 식별이 가능하게 표시하면 된다는 의견이나, 다른 한편에서는 상표제품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 이와 동일한 방법 및 형태로 동일한 개수만큼 표시해야 한다는 것으로 업계내 결론이 나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5) LNG 특소세 인하 동향

중유와 산업용 LNG간의 상호 대체성으로 인하여 양 에너지원간 세금관련 논의가 최근 몇 년 동안 업계의 지속적인 Issue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2001년 말에는 의원입법 형태로 LNG특소세 인하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또 다시 양 에너지원간 경쟁력이 세간의 도마에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LNG특소세 인하 논의에 앞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세계개편시 양 에너지원간 경쟁력 및 수급상황 등이 충분히 고려되었고, 2006년에는 중유 세금이 LNG 세금보다 더 높아진다는 점 등을 감안할 경우 특정 업계에 이익이 돌아가는 LNG 특소세 인하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산업용 LNG 및 중유 수요 추이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연평균증감률(%)
중유(천B)	66,650	55,083	62,420	56,322	50,087	△6.9
LNG(천톤)	1,043	1,394	1,968	2,681	2,990	+30.1

LNG 및 중유 총세금 비교

	특소세	열량당 세금(W/천Kcal)		차이(A-B)		
		LNG 세금(A) (W/m)	B-C유 세금(B) (W/l)	LNG세금(A)	B-C유 세금(B) (W/천Kcal)	
현행	LNG:40W/kg B-C유:3W/l (~02.6)	46.29	26.07	4.41	2.63	1.78
	LNG:40W/kg B-C유:20W/l (06.7~)	46.29	45.62	4.41	4.60	Δ0.19

\* 열량 기준 : B-C유 9,900 kcal/l , LNG 10,500 kcal/m<sup>3</sup>

\*\* LNG 및 B-C유 세금 : 관세+부과금+특소세+교육세+기타 (LNG 가스안전기금, B-C유 품검수수료)

(6) 수입업자 동향

석유제품 수입업자 수 및 판매물량은 2001년도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현재와 같은 관세율 구조로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02년 7월에는 수입업자의 점유율이 13.5%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경유의 경우 18%로 SK, LG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단위 : %)

연도	*주요유종(4개)	휘발유	경유
1998	0.05	0.01	0.11
1999	1.0	0.6	0.6
2000	2.3	1.2	1.9
2001	4.2	6.0	5.5
'02. 7월말	13.5	7.1	17.9

\* 주요유종(4개) : 휘발유, 등유, 경유, 병커-C유

수입업자의 경영실적을 보더라도 2001년 정유업체가 환차손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매출액이익율이 0.1%~Δ5.5% 수준인데 반해, 수입사들

0.3%~0.4%의 매출액이익율을 기록하였다.

2001년 정유사 및 수입사 영업이익률 및 경상이익률 비교

(단위 : 억원)

	정유사(정유부문)					수입사		
	SK	LG	인천	S-Oil	현대	타이거오일	삼천석유	이저석유
매출액	131,560	91,231	32,086	67,746	71,173	2,749	2,978	1,511
세후순이익	Δ887	78	Δ1,771	132	Δ3,116	11	15	4
(세후순이익율)	(Δ0.7%)	(0.1%)	(Δ5.5%)	(0.2%)	(Δ4.4%)	(0.4%)	(0.5%)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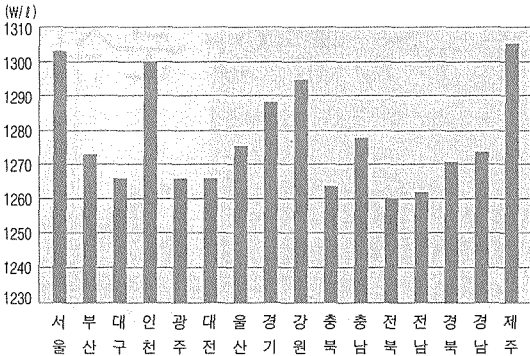
(7) 국내유가가 적정성관련 논란

9. 11테러 사태이후 급등하리라 예상했던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국제유가가 하락했는데 국내유가는 인하되지 않는다는 비판적 여론이 형성된 한 해였다.

그러나, 국내유가는 원유도입 과정상의 수송기일(20일~30일) 등으로 당월 국제유가 및 환율 변동분이 다음 달 국내유가에 반영되고 있는 구조이나, 실제 소비자들은 국제유가가 인하되면 곧 바로 국내유가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 이러한 국제가격의 국내유가 반영 시차문제에 대한 일부 오해가 소비자들의 불만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정유업계로서는 국제유가 및 환율 변동 등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국제유가의 인상/인하 여부를 떠나 원가변동분을 다음 달에 줄곧 반영해오고 있어 국제유가가 인하될 때 곧바로 국내유가가 인하되지 않는다는 외부의 비판에 일부 억울한 점이 없지는 않으나, 문제 발생의 근본원인이 정유업계의 홍보 부족에도 있는 바, 앞으로는 국내유가관련 소비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01년간 지역별 휘발유 소비자가격 현황



뿐만 아니라, 정유사 공장도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주유소 판매가격이 인하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노선별로 전국 주유소에 대한 조사를 시행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주유소 판매가격은 해당 지역/노선의 소득수준 등 소비패턴(가격탄력성), 시장규모(수요), 주유소 수, 주유소 단위당 판매량, 세차 등 서비스시설 수준, 지가 등 주유소 고정비용 수준, 수입업자/무플 등 덤핑위주 주유소의 유무 등에 따라 주유소 판매가격은 지역/노선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8) 가짜휘발유

1998년 이후 휘발유에 대한 세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한 가짜 휘발유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었다. 10월 31일에는 대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는 가짜휘발유 사용근절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특히, 경실련은 무리한 교통세 부과로 가짜휘발유 사용이 증가되었음을 지적하고, 휘발유 세금규모의 현실화 및

징수된 교통세 등 유류관련 세금을 향후 교통시설 기반 확충사업에 전액 투자할 것으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에, 산자부는 11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검경, 시도, 품검소, 정유사와 공동으로 가짜 휘발유 특별단속을 시행(포상금 500만원)하였으며, 그 결과 195건의 가짜휘발유 신고가 접수되어 이중 9건이 가짜휘발유로 판명되었고, 81건에 대해서는 현재(02. 5. 13일) 수사기관에서 이를 조사중이다.

3. 맺음말

2001년 한 해 에너지세계개편과 환율 상승이 정유업계의 큰 Issue 였다면, 향후 정유업계는 환경규제 강화, 환경세 도입 등 환경관련 Issue와 국내 석유시장의 공정경쟁 Rule 확립을 위한 합리적 관세율 개편이 주요 Issue일 것이다.

특히, 국내 정유산업의 건실한 발전을 위해서는 유통부문에서 합리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유류전용카드제 도입, 전자상거래 활성화, 수급 상황 보고 의무 및 비축의무 등 석유사업법상 의무의 완전한 이행/점검, 복수상표표시제의 완전한 정착 등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정유업계는 외부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내부 투자여력 및 Flexibility를 최대한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Cost절감을 위한 정유업계의 전략적 제휴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